

2022년 06월 19

주일예배순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변화 부흥
회복

◎ 말씀선포 / 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가?

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자연도, 삶의 환경과 상황도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가득합니다. 그렇기에 인생은 절대적인 힘을 가진 신적 존재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신적 존재에게 바라는 것은 바로 인생의 복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신적 존재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나주셨으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되었으며 사람의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수많은 인생은 자신의 복을 구하며 다른 신을 찾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바른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욥기가 던지는 질문 앞에서 과연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가를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욥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참된 신앙의 목적은 과연 무엇입니까?

1. 인생의 복이 신앙의 목적이 아닙니다.

- 사탄은 욥이 자신의 이기적 만족을 위해 하나님을 섬긴다고 모함했습니다. 본문 9~10절입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사탄은 하나님이 욥을 보호하시고 그의 필요를 풍성히 공급하시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정직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참되게 믿은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복을 내려 주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주신 물질의 복, 다윗에게 주신 높은 지위를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 가운데는 물질과 지위도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복이 하나님을 섬기는 진정한 이유가 되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 우리는 누구든지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가기 원하고 좀 더 좋은 집에서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이러한 복을 구하는 기복 신앙을 마치 참된 믿음인 것처럼 가르치는 사람들도 적지 않음을 봅니다. 사탄은 우리의 믿음이 이러한 복에 연연하며 기복 신앙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기복 신앙에 머문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이 바뀌면 하나님을 원망하며 배반하기도 쉽기 때문입니다. 말씀에는 분명 물질이 복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물질의 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물질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참된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우리의 진정한 예배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의 자세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신앙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2. 창조주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위함입니다.

- 사탄은 욥에게서 복을 제하면 그가 하나님을 잊고 오히려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본문 11절입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 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가.” 하지만 하나님은 욥에 대한 기대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욥의 소유물을 사탄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나님은 욥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섬김을 저버리지 않을 것을 아셨습니다. 욥의 삶에 닥친 고난이 그가 하

나눔을 믿은 이유를 드러낸 것처럼 성도들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과 시련은 우리에게 참된 믿음의 동기를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바벨론 왕의 신상을 섬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풀무 불에 던져졌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를 믿었으나 만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자신들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결기를 보여 주었습니다. 욥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신앙이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이용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받아 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 가장 중요했으며, 하나님과 지속적이면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믿음의 본질적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자세를 기뻐하십니다. 하박국 선지자 역시 기복 신앙을 버리고 참된 믿음의 세계로 돌아오라고 도전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하박국 3장 17~18절에서 나타난 그의 신앙 고백은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과 친밀하고 인격적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신앙인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물질 만능주의 세상 속에서 좀 더 많은 부와 물질적 풍요가 하나님의 복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복을 기대하며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가장 큰 복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 가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자체입니다. 하나님과 나누는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참된 성도가 누리는 기쁨이자 이유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바로 이러한 온전하고 정직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신앙, 믿음의 목적으로 더욱 하나님과 영적교제가 깊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가족합심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 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 자녀들에게 믿음의 세대계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3. 코로나19 가운데서도 나의 믿음과 가정, 교회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 찬 송 / 342(통395)장 너 시험을 당해

◎ 폐 회 / 주기도문